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성안당다블뤼한인성당 주임사제 정광호 신부가 17년간의 보스톤 여정을 마치고 보스톤을 떠난다. 정광호 신부와 12월 12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임 인터뷰를 17년만에 가졌다 (사진제공 = 보스톤한인성당)

한인 성당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 보스톤 떠난다

지병으로 은퇴, 캐나다 수도원 아닌 한국으로 귀국
한인 성당의 위기상황서 부임 17년간 공동체 이끌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성 안당다블뤼한인성당의 주임사제인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65)가 17년여만인 1월 말 보스톤 한인공동체를 떠난다. 17년간 조용히 산책을 하듯 보스톤 한인성

당이던 공동체를 이끌어온 정 신부다. 정광호 신부를 검색하면 간단한 2007년 부임 기사 외 다른 이야기가 없다. 마치 얼마전에 보스톤에 도착한 사람처럼. 그러나 그의 부임 당시 상황은 그렇게 조용하거나 간단한 상태가 아니었

다. 2007년으로 돌아가보자. 뉴튼 와반의 세인트 필립스 교회에 자리한 카톨릭 한인교회에서는 박승재 신부의 이임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성도들은 보스톤 교구청의 이임 결정을 반대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보스톤 교구청은 여러가지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던 끝에 급기야 캐나다에 있는 정광호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하

정기 휴간 안내

12월 29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코로나 및 플루 한꺼번에 검사 가정용 테스트키트, 무료로 제공

코로나 및 플루테스트 등록 신청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와 플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료로 플루와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진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유메스캔메디컬스쿨이 운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회사 eMed는 보건부의 지원을 받아 자격이 되는 미 국민들에게 플루와 코로나를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가정용 무료 테스트키트를 제공한다.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테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양성인 경우 텔레헬스 예약을 통해 치료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 >>4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인 90% 김정은 알지만 과소평가, 대북정책에 오히려 방해

평통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강연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평통간사,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문수)는 지난 12월 10일 윌슨센터 펠로우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윤 텃스 플래처스쿨 교수를 초청, 북한 인권관련 송년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오은희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강연회에서 홍순복 부총영사는 축사에서 남성 4중창 보컬 그룹 '포레스텔라'의 아름다운 화음을 좋아한다며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도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잘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유현경 부간사는 강연자 소개에서 "이성윤 교수는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연회에서 이성윤 교수는 청중을 향해 "북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지난 2022년 7월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미국 시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 김정은의 사진을 보여주자 응답자의 90%가 북한 독재자라고 제대로 대답을 했다"고 하며 북한의 독

재자 김정은은 사진만으로도 세계인들이 가장 쉽게 알아보는 국가원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미국 시민들의 대외 정책에 대한 관심 부재에도 불구하고 만 40세도 안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북관과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심지어 시진핑 보다도 더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서방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과소평가가 협상과 합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없이도 다독거리면 되지 않을까 하며 안이하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북한을 너무 쉽게 판단해온 경향이 있었기에 그동안 김정은에게 끌려갔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독재정치와 관련하여 봉건주의처럼 폭정이라고 했다. "북한의 역대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자신들에게 대항

하고 반항하는 관료들 임의로 사형시키고 공개 처형 시켰던 공포정치의 예시와 함께 공산당 독재 왕조에서는 2인자는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UN 인권 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은 지독한 범죄조직이며 마피아와 흡사하며 현재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독재 국가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은 공업화, 산업화를 달성하고 문맹을 퇴치를 달성한 국가이지만 기아를 겪는 유일한 국가이다"라고 설명하며 "식량난은 인재이며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이 만들고 지속시키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북한은 1990년대부터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기아문제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자급도가 45%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식량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유아시아가 중국



의 세관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안남미 등을 10만톤(50million) 수입했다. 따라서 북한의 분배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전력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여정에 관련해서는 "친 오빠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후계자로 주목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로 도약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자녀가 성장할 시간을 고려한다면 약 10-15년 사이에 김정은이 타계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시에는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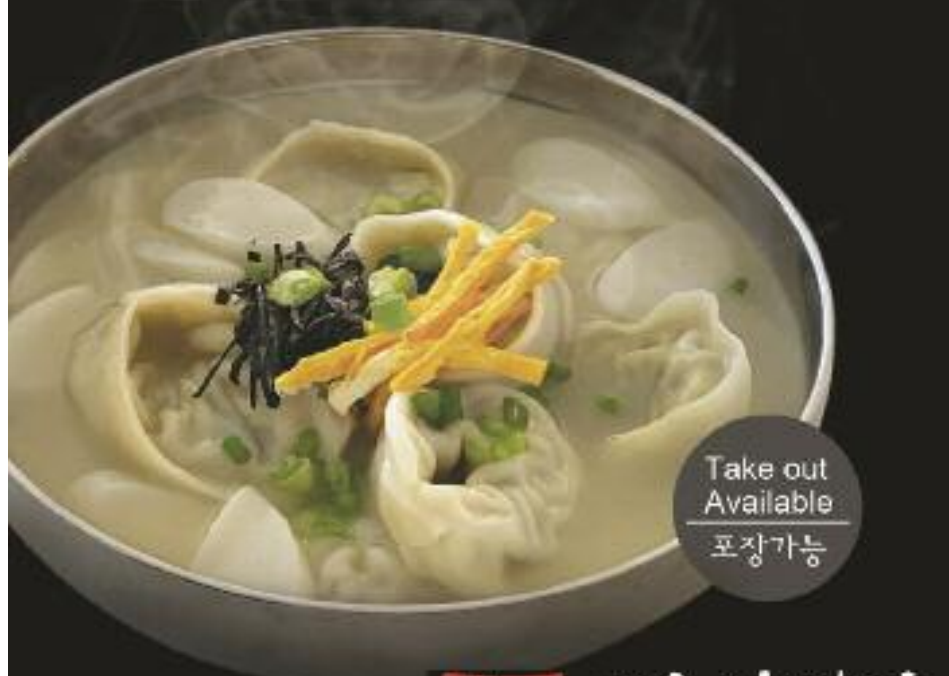
인 고문의 "북한은 왜 의도적으로 기근을 유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등 여러 질문이 이어졌으며 특히 장우석 위원은 "21기에 참여를 결정하고도 기대반 걱정반이었는데 오늘처럼 좋은 강연을 마련해 주어 고맙고 마음이 편안해 졌다며 앞으로 평통에서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로 하면 열심히 돕겠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성윤 텃스 플래처스쿨 교수는 김구재단의 한국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웨더헤드 국제관계센터의 미일 관계 프로그램의 조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더 시스터: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 김여정의 비범한 이야기'를 출판했다. 미 대북정책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책담당들에게 자문을 해오고 있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동포 2세대들 대통령 봉사상 및 차세대 교사상 수여식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역 최대 규모로 뉴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는 지난 토요일 한글 교육을 통한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인 2세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격려했다.

유아반부터 이중언어과정 및 성인학급까지 10개 과정에 모두 50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현재 64명의 교사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30여명의 한인 2세 보조교사들이 교사를 도와 후배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글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조교사회 측은 “보조교사로서의 봉사과 체험이 소중한 본인들의 성취감도 많이 같은 후배 교육을 돕는 보조교사 참여와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 같은 교사진의 헌신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미주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수준의 수업과 오전 오후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남일 교장의 귀뜸이다.

뉴턴 소재 강당에서 이날 보조교사회 박현아 리더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

는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수업과 각종 행사 및 오후수업으로 태권도와 기타 학사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보조교사 및 2세들에 대한 대통령 봉사상과 차세대 리더상 및 차세대 이중언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장학금 등이 수여됐다.

남일 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상을 받는 모든 학생들과 지도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귀한 시간과 달란트 나눔을 통해 많은 후배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다”면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보조교사는 물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조교사회는 자체 편집부를 통해 월간 한영신문 KSNEAN도 발간하고 있다. 지난 주에 발행된 12월 호에는 현재 영화 ‘서울의 봄’으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12.12군사반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번역한 학교내의 행사는 물론 시사, 문화 이야기도 실려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2023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 2차 정기모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는 지난 12월 8일 금요일 Watertown에 소재한 BioLabs에서 2023년 2차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의 교우들은 2023년 한해를 돌아보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교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3 정기고연전에서 승리하는 영상과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이 해외 교우들에게 보낸 교우 송년사를 함께 시청하며 다시금 모교에 대한 향수에 젖을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이봉춘 교우(

불문 68)부터 정영훈 교우(식품공학 16)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대의 갭이 있었지만 교우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대 뉴잉글랜드 한인회장이었던 한선우 교우(원에 78)는 “교우회를 통해 한동안 뜸했던 선후배 간의 화합이 살아나는 것 같아 기쁘다” 고 하면서 교우회의 차기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프 프로인 정철화 교우(농화학 83)는 교우들의 골프 실력 향상과 골프를 통한 교우애를 더욱 다지기 위해, 내년 시즌 적극적으로

레슨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한편 15년 전 교우회를 통해 만나게 된 이대식 교우(경영 96)와 박상원 교우(생명과학 97)가 화족을 밝히게 되어, 뉴잉글랜드 고려대 교우회의 1호 커플이 되었다.

다음 교우회 일정은 내년 2월 회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두차례의 정기모임, 야유회 및 고연전 골프대회 등이다.

교우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박성철 회장 (노문 93, spark32@gmail.com), 유우진 총무(통계 06, woojinr@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미 가정에서 코로나 및 플루 무료 테스트 제공

▶▶1면에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팩스로비드(Paxlovid) 또는 몰누피라비어(Molnupiravir) 안티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 받으며 만약 플루인 경우 타미플루(Tamiflu) 또는 조플루자(Xofluza)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료 테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 또는 플루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 무보험자이거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베테랑 헬스케어에 가입된 사람이어야 한다.

단 현재 코로나 또는 플루에 감염돼 있는 경우 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텔레헬스와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하버드 찬 공공보건대학원의 마이클 마이아 박사는 “테스트를 받기 위해 생명이 지장을 받거나 가정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일 수 있다” 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지를 밝혔다.

테스트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과거 코로나 테스트처럼 면봉으로 코안을 문지른 후 보라색 용액이 튜브에 넣은후 면봉을 빼고 이 튜브를 기

본 디바이스에 넣는다. 코로나 또는 플루에 양성이면 수분 안에 LED 불빛이 들어오면 양성이다. 만약 음성이거나 테스트가 부정확한 경우 40분 후에 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2일 후 다시 검사를 시도한다.

마이아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져서 현재의 코로나 증세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과거처럼 호흡곤란, 또는 후각과 미각을 잃는 증상 대신 코로나 증상은 콧물과 열 그리고 코막힘 등이다.

혹 이메드(eMed)의 테스트키트 수령 자격이 안되는 한인들의 경우 정부의 웹사이트 covidtests.gov에서 8개의 무료 테스트키트를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웹사이트 또는 833-450-3461을 통해 팩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FDA 집에서 코로나와 플루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키트를 승인했다.

테스트키트 신청 주소 : https://www.test2treat.org/s/?language=en_US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MA주 푸드스탬프 혜택 범위 넓혀, 합법 이민자면 제공

영주권자 이상만 제공하던 혜택 범위 확대
새벽 6시부터 줄서는 이민 난민들 음식제공 위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MA 주의회와 주지사는 지난 주 현재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저소득층 음식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의 혜택 범위를 아주 조용히 확대했다.

이번 적용 범위 확대로 주정부는 6백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이는 약 7개월 정도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과거 소득제한만 충족하면 모든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도 푸드스탬프를 지급했으나 지난 2002년 이래 이를 중단했다.

지난해 미국내에 난민들의 대폭적인 유입으로 주정부는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음식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번 혜택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민자 커뮤니티 그룹 라 콜라보 레티바는 1주일에 2차례 토빈브리지 아래에서 푸드 팬트리 운영하고 있으며 약 1만여명이 이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랜리즈 디지너스 디렉터에 따르면 이 같은

수는 매주 증가하는 있다.

이 단체는 오후 3시부터 음식을 배포하지만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들중 대부분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졌으나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이민신분으로 인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디지너스 디렉터는 밝혔다.

푸드 스탬프 혜택은 이들 중 상당수에게 긴 줄을 서는 대신 EBT카드를 이용해 일반 그로서리에서 장을 볼 수 있게 할 전망이다. 특히 날씨가 더 추워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도적인 조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매사추세츠의 최대 푸드스탬프 지급은 싱글의 경우 한달에 \$29이며, 2인은 \$535, 3인인 경우 \$766이다.

그러나 재정적 보수 단체인 매사추세츠 재정동맹의 폴 크라이니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모두가 이민자의 어려움에는 동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 및 연방 정치인들은 납세자의 돈이 같은 문제에 쏟아 붓는 방법 외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 선출했다”면서 “남쪽 국경문호를 개방하고 고장난 이민시스템 하에서 관대한 푸드스탬프를 납세자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디지너스 등은 2025년 예산에도 이번 푸드스탬프 확장 예산이 포함되기를 기원했다.

hsb@bostonkorea.com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 에디타스에 대박인 이유

버텍스 에디타스에 1억달러 라이선스 비용 지불기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전자 편집기술로 제작된 캐스제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인 버텍스(Vertex)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게 됐다. 버텍스는 보스톤 경쟁사인 에디타스에 1억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보스톤의 버텍스는 케임브리지의 에디타스사에게 5천만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고 추후 증권 보고시마다 5천만달러를 지급기로 했다. 또한 매년 약 천만달러에서 4천만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Cas9)은 MIT 하버드 공동설립 브로드연구소의 펄장 박사와 UC 버클리의 에마뉴엘 카펜티어,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특히 다툼중에 있다. 비록 노벨상은 2020년 카펜티어, 다우드나 두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미국 특

허청은 2022년 브로드연구소에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에디타스는 브로드연구소 장 교수의 크리스퍼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버텍스는 이 기술을 이용한 캐스제비를 승인받았기에 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에디타스는 라이선스 비용으로 2026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게 됐다. 에디타스는 9월말 현재 8천2백50만달러의 캐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4천5백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해 곧 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었다.

한편, 에디타스는 라이선스 비용중 일부를 브로드 연구소와 하버드에 매사분기 지불하게 된다.

에디타스는 다른 회사들과도 버텍스와 유사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3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가슴이 따뜻해 지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나눔으로 우리는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한인 성당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 보스톤 떠난다

▶▶1면에 이어서

기에 이르렀다. 수도원에서 안식년을 지내고 있던 정 신부는 한인 공동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에 이를 포기하고 보스톤으로 달려왔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는 부임 후 2달간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 신부가 부임하면서 한인 공동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제 별써 17년이 됐다고 정신부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실 부임 이후 정광호 신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년여간 한번도 만나지 못했던 정 신부를 12월 12일 뉴튼 사제관에서 만났다. 첫 인터뷰가 이임 인터뷰이니 삶은 참 아리러니다.

일반적 심혈관질환과 다른 특이한 심장병을 지병으로 앓고 있는 정 신부는 이번 목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해 귀국한다. 카톨릭의 교구 신부는 보통 70세, 수도원 신부는 80여세까지 신부직을 맡고 은퇴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심장병을 앓고 있기에 ‘젊은’ 나이에 캐나다의 예수성혈수도원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암을 앓고 있는 수도원 원장 신부가 오랫동안 안 지병을 앓고 있는 정 신부를 ‘방기했다’는 마음이 들어 은퇴를 권고하게 된 것이다. 미국 성당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정 신부는 지병으로 쓰러지면 수도원에서 돌볼 수 없고 한국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와야 하기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주인신부의 말을 듣고 ‘미적미적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잡아 이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기꺼이 순종”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혼자 한 시간 정도 숲을 걸으며 기도하고 상념을 이어가는 일종의 명상을 가장 좋아하는

일로 꼽은 정 신부는 “은퇴가 결정되자 답답했다. 생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었다. 한국 생활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막막하다” 고 털어냈다. 은퇴 후 흥겨운 상태로 유유자적할 수 있으리란 예상과는 달랐다.

수도원 신부의 모든 소득은 수도원으로 간다. 그야말로 무소유다. 대신 은퇴 후 신부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기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지병으로 인해 한국으로 가게 되니 먹고사는 것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생의 목회에도 매달 수도원이 지급하는 소액이 생활비의 전부다.

“음식하는 남자가 부럽고 존경스럽다”는 정 신부는 “은퇴는 혼자서기이니 음식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부엌을 사랑해야겠다” 고 말했다. 경북에서 위로 누나 6명에 막내로 태어나 부엌근처도 허락하지 않았던 엄마의 영향으로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낭비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음식하는 게 제일 약한 부분이 됐다.

정 신부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부엌에서 서성거리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근래 1년 동안 다시 국물을 내는 것을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얼마전 한 여신도님이 조그마한 알약 같은 것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다” 고 너털웃음을 웃었다.

정 신부는 이제서야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일에는 서툴러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한인카톨릭 공동체를 밖에서 보기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7년간 이끌어 왔다. 그간의 이야기도 궁금했다.



12일 뉴튼소재 성양뚜앙다블뤼한인성당의 사제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 성당은 1월 14일 오전 11시 은퇴 미사 및 송별연을 개최한다

성당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뺄 수 없다. 현재 교회로 사용하는 뉴튼의 성양뚜앙 다블뤼 성당은 보스톤 교구가 다른 교회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당초 매각하려 했던 성당이다. 재정 위기에 놓였던 보스톤 교구는 10년간 교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거 한인 성당으로 이용했던 뉴튼 외반에 위치한 세인트 필립스 성당을 매각기로 결정했다.

한인 공동체는 과거 성당 인근의 다블뤼 성당을 200만 달러에 구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약 150여만 달러를 그동안 모금했다. 정 신부는 이 금액을 모금하는 동안 보스톤 교구청에 내야 하는 금액을 5년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50만달러를 절약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 성당의 지분을 70여만 달러를 들여 수리하면서 아예 당초 주기로 했던 200만달러의 매각 금액까지 면제 받았다.

정신부는 카톨릭의 희년이 올 때마다 오는

성년에 교구청과 주요 신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성부가 너희에게 자비로웠던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성년은 자비, 묵상, 감사, 기도하는 해인데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많은데 자비를 베풀 때가 됐다. 같은 신자에게 교회를 파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지적했다. 정 신부는 교회의 소유권을 가진 미국 카톨릭 교회에 가서 감동의 메시지로 호소해 교회건물을 선물로 받아내는데 이르렀다. 지붕 수리비도 보스톤 교구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리하고 이 대출금도 그동안 모았던 2백만 달러의 이자로 충당해 부담이 없다.

팬데믹에도 한인 성당은 오히려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 보좌신부의 도움으로 바로 유튜브를 통해 매일 혼자하는 미사를 신도들과 나눴다. 신도들이 흠어지지 않았고, 운신이 어려운 신자도 참여했다. 외부의 신자들도 함께 했다.

▶▶7면으로 계속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6면에 이어서

정 신부는 팬데믹을 겪어가는 가고 알맹이만 남기는 타작과 유사하다고 회상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힘이 있을 때 가벼우면 날라가고 알맹이처럼 무거운 사람들은 그자리에 남게 된다” 고 말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정화의 과정이란 것이다.

정 신부의 뒤를 이어 주임사제는 배웅진 신부가 맞게 된다. 배 신부는 보스턴 한인성당 출신으로 부제 서품을 한인성당에서 받았다. 정 신부가 추천해 사제가 된 인연이다. “제가 추천해서 신학교에 보낸 신부이며, 과거 ‘아들 신부’ 로 불렸던 분으로 저로서도 기분이 좋다. 연세도 40대여서 재미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나이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처럼 오래 있어야 할지는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사회를 내부인과 외부인의 공통된 시선에서 바라보며 17년을 지내왔던 신부는 “섬사람과 같다” 고 비유했다. “외국에 뿌리내리면서 산다는 것은 많은 경우 쉽지 않다. 이런저런 핸디캡을 갖고 있다. 주류문화에 속하지 못하고, 쫓기고, 마치 섬사람처럼 바깥에서 돈을 벌고 고기를 잡아 섬에서 우리끼리 시간을 보낸다.”

“교회도 비슷하다. 세상에서 돈벌고 그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바다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자꾸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는 느낌” 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한인 사회에 있다” 는 그는 “한국 사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우리를 꾸리는 것이 강하다는 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서 마음이 씩씩 하더라” 고 여운을 남겼다.

해야 할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정 신부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인터뷰가 아닌 웬지 같이 기도를 하고 나온 느낌이었다.

17년여간 정 신부는 보스턴의 카톨릭 공동체를 이끄는 데 모든 심혈을 쏟았다. 이제는 심장병이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몸을 이끌고 어찌보면 낯선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사랑하고자 하는 공간에서 다시국물을 끓이듯 서성이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editor@bostonkorea.com



케임브리지 거리청소 위반주차 차량 벌금 두배 인상 추진

견인 금지 신규 프로그램 후 차량 이동보다는 \$50벌금 선택 늘어 고민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길거리 주차의 대안이 없는 주민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일 중의 하나는 바로 거리청소다.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 견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거리청소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50의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문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량을 옮기는 대신 \$50을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케임브리지 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이후 거리청소반은 견인트럭을 불러 차를 치우도록 기다리는 대신 주차차량 주변은 건너뛰고 청소를 진행하기에 청소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다. 문제는 거리가 예전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한번 주차 벌금을 선택한 주민은 반복적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차량이 견인 당했을 경우 \$30의 주차 위반 벌금에 견인비 \$100를 부담해야만 차를 찾아 올 수 있었다. 견인 주차장까지 가는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매일 \$40의 주차비용과 만약 밤 12시를 넘기는 경우 \$40의 추가 주차비를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거리청소 위반으로 견인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케임브리지시는 이 같은 시범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티켓발부나 거리청소시간은 단축됐고 거리를 어느 정도 깔끔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지저분해졌다. 그러나 차량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두배에 가까이 늘었다” 고 평가했다.

시범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케임브리지시는 6,905건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5,749대의 차량을 견인했다. 2023년에는 13,222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반복적인 위반자들은 632명에서 188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 번 이상 티켓발부 차량은 5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케임브리지시는 거리청소 주차 위반 비용을 \$100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금액도 견인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저렴하기는 하지만 누적되는 티켓의 벌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때 때문이다.

케임브리지시 컨던 존더벤 시의원은 견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차량을 거리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다시 견인을 도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차량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100

인상안을 2025년부터는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더벤 의원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거의 6천건에 달하는 견인을 피할 수 있었으며 청소차량은 견인을 위해 매 차량마다 약 10-15분을 대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존 피츠제럴드 케임브리지 공공사업부 환경서비스 매니저는 거리청소 요원들의 작업시간이 1시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피츠제럴드씨는 “우리는 차량 우회해서 청소하며 또한 많은 티켓을 발부한다. 우리 요원들은 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 말했다.

케임브리지시는 거리청소에 \$125,000를 추가로 투입해 매년 약 1,500에서 2,000톤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견인 금지 시범프로그램에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69%가 시범프로그램의 영구화를 원했으며 단 10%만 반대를 표시했다.

거리청소는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길 양쪽의 거리청소는 1달에 1회씩 실시한다. 공원, 플라자, 그리고 일부 메인 스트리트는 자주 거리청소가 실시된다.

주차비 인상을 위해서는 케임브리지시의 인상 결정안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차비 인상은 가장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번주 절정, 제머니드 별뿔별 12월 하늘서 쏟아진다

겨울 하늘서 유성 한시간에 100여개 이상 쏟아져 내려 30분 정도 어둠에 눈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가져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제머니드(쌍둥이자리) 별뿔별이 이번주 수요일인 13일 절정을 이루며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쏟아진다.

제머니드 별뿔별은 12월에 발생하지만 너무 춥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달이 밝아 이 제대로 관측하기가 용이치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날씨도 과히 춥지 않고 맑으며 달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별뿔별을 관측하기에 최고의 상태다.

절정인 13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은 거의 맑은 하늘이어서 많은 때는 한시간에 약 120여개에 달하는 별뿔별이 떨어져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별뿔별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에서도 시간당 약 20여개의 하늘을 가르는 별뿔별을 볼 수가 있다.

모든 별뿔별은 밝기가 다르며 아주 흐릿한 별뿔별의 경우 도시의 불

빛에서는 흐려지기 마련이다.

별뿔별을 보려면 어두워질 때 하늘을 쳐다본다. 특별히 일정 방향을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제머니드(Gemini, 쌍둥이자리)별자리로부터 유성들은 방출되어 하늘 전 방향으로 유성이 떨어지게 된다. 쌍둥이자리는 밤하늘 동북쪽인 오리온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그쪽을 쳐다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빛이나 셀폰 등을 보지 말고 약 30-45분정도 어둠에 눈이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서 별뿔별을 볼 수 있게 된다.

어스스카이닷오알지(EarthSky.org)에 따르면 “동쪽에 있는 제머니드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캐스터 인근으로부터 별뿔별들이 퍼져나와 떨어져 내리며 새벽 2시께 가장 많은 별뿔별이 쏟아진다. 작은 혜성들이 대기를 통과하면

서 만들어지는 다른 별뿔별들과 달리 제머니드 유성들은 지구가 3200 페톤이라는 이름의 소행성에서 부서져 나오는 각종 부스러기들의 사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 이 부스러기들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밝게 불타오르는 모습이 별뿔별이다.

현재는 초승달이고 이번주 대부분의 밤 달이 지평선 아래에 머물고 온도도 해질 무렵 30도대이며, 밤이 깊어질 때 20도 대로 떨어지겠지만 바람이 없어 아주 춥지 않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별뿔별을 보기 위해 특정 장소를 찾으려면 좀더 넓은 공간인 공원이나 해변, 산등성이 좋으며 큰 파킹장도 일부 별뿔별을 볼 수 있다.

이번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다. 이번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절정을 이루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들에게 제머니드 별뿔별을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70년 지난 지금까지 명예 훈장 받기 위해 노력 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문서연 인턴 기자= 1951년 한국 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했던 얼 메이어(Earl Meyer, 96세)는 한반도가 휴전 협정을 맺은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퍼플 하트 훈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퍼플 하트 훈장(Purple Heart medal)은 미군 군복무 중 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수여받는 훈장이다.

메이어는 6월 전투 중에 박격포로 인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미군에게 제출했으나, 육군 검토 위원회는 문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퍼플 하트 훈장 요청을 기각했다. 재향군인회 의사들은 그의 부상이 박격포로 인한 것이라는 메이어의 말에 동의했지만, 이미 7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다른 군인이나 관계자의 증언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메이어는 지난 2023년 9월, 국방부와 육군을 고소했다. 메이어는 본인의 부상이 다른 군인들의 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

미했기 때문에 퍼플 하트 훈장 요청을 꺼려했으나, 그의 세 딸이 그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의 막내 딸은 퍼플 하트가 메이어의 ‘오랜 전쟁의 기억과 아픔을 끝맺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재향군인 서비스 조직인 American Legion의 장애 청구 및 항소 전문가인 토니 크로스는 훈장 거부 사례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이어의 경우 70년이라는 시간이 심사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군부대마다 훈장 승인 절차가 다르고 메이어처럼 군인이 군대를 떠난 이후에는 부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기록의 부재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전투 중 입은 부상인지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국방부는 훈장 심사를 어떻게 마칠지, 또 법원은 메이어의 고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J.K. HEATING & PLUMB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제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전신 균살 빼는 10분 전신운동



최근 gym에서 운동을 시작한 저의 큰 딸이 이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도 안하고 그냥 운동만 해.. 저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15살 밖에 안된 아이가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하고 대부분이 근력이나 유산소운동에만 집중하고 몸의 가동성과 유연성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과 스트레칭을 골고루 따라할 수 있는 전신 운동과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운동과 함께 영상에 담긴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온몸이 진짜 개운하고 가벼워질 거예요.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최근 십분요가 챌린지 (day12) 영상을 참고하세요.

1. 클램셸 + 힙업- 허벅지 토닝

1단계 사이드 라잉 자세에서 팔꿈치를 내리고 무릎을 접어 두 발을 모으고 두 다리를 벌려줍니다.

2단계 두 다리를 다시 모으고 이번에는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3단계 위의 두 동작을 이어 45초 반복합니다



4단계 호흡과 함께 옆구리의 자극과 엉덩이의 힘에 집중하세요.

TIP! 어깨가 눌리지 않게 목을 길게 유지하고 진행해주세요.



2. 싱글 레그 리프트 + 사이드 크런치- 옆구리 토닝

1단계 위의 동작에 이어 바로 윗다리를 뻗어 엷다운을 반복해주세요.

2단계 옆구리의 자극에 집중하려면 손을 머



리에 두고 팔꿈치를 허벅지 쪽으로 좀더 가깝게 가져가면 됩니다.

3단계 옆구리가 살짝 아플 정도로 해주세요 (옆구리살이 접히는 걸 느껴야해요!!)

TIP! 두 엉덩이가 수직으로 유지되게 하고 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기며 코어운동을 이어주세요.

3. 머메이드 포즈 - 허리 사이즈 줄여주는 운동

1단계 영상을 참고해 손과 팔의 포지셔닝을 한 후 두 다리를 모아 들어줍니다.

2단계 허벅지 안쪽을 서로 강하게 조여 두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3단계 두 다리 드는게 버겁다면 밑의 다리 한번, 윗다리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들어줍니다.

4단계 모든 동작이 끝나면 반대방향으로 넘어갑니다.



TIP! 운동하다가 목이 아프면 잠시 머리를 내려놓고 쉬었다가 이어가셔도 좋아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성양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NEW WOODS LIBRARY / WINE OF THE GOSPEL CENTER

성 양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주세요: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깝게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 보내시고,
 남은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Compass,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COMPASS

보스톤 시의회 비시민권자도 투표 허용법 통과

보스톤 시장 서명 및 주 의회 승인 남아 먼 길
비시민권 이민자 보스톤 주민의 25%, 세금도 23억 달러 납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보스톤 시의회는 13일 비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보스톤시의 법안은 미셸 우시장의 서명 후에도 주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표까지는 갈 길이 남았다.

이번 법안은 시민권이 없지만 보스톤에서 살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 이민자들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캔드라 라라 의원에 따르면 보스톤 내 비 시민권 합법 이민자들은 보스톤 주

민의 4분의 1에 달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약 23억달러에 달한다.

법안을 발의한 캔드라 라라 의원은 “투표권은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부여해온 권리”라고 주장했다.

가브리엘라 콜레타 시의원은 이번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이 주하원의 투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 법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줄리아 메이저 의원은 상당수의 보스톤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스톤 투표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인 마이클 플레허티 의원은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에 애한 법적인 우려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시민권자 투표가 혼란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이들이 보스톤시의 투표가 아닌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 투표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 주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법은 비시민권자의 대통령과 연방의회 선거의 투표를 금하고 있으나 주정부나 시정부 등이 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금하고 있지

않다.

버몬트와 메릴랜드 주의 일부 타운은 이 같은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뉴턴, 케임브리지, 서머빌 그리고 앰허스트 등이 투표권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지금 주 법무장관인 앤드레아 캠퐀이 보스톤 시의원일 때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다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8-4로 표결해 통과됐다. 반대표는 플레허티, 에드 플린, 프랭크 베이커 그리고 에린 퍼피 등 4명이다. 미셸 우시장은 이번 법안을 리뷰해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주 초 시의회 회의에서 캔드라 라라 의원은 아무리 법적으로 건실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주의회가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이 나라의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라고 쏘아붙였다. 캔드라 라라 의원은 보스톤 시의원 중 가장 급진적인 의원으로 지난 11월 선거에서 탈락했으며 12월 임기가 마감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美, 기준금리 5.25~5.50% 동결...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상

3회 연속 동결로 2001년 이후 최고수준 계속 유지...한국과 금리차 2.0%p
파월 "금리, 최고점 또는 그 근처 도달...추가 긴축 필요성 판단할 것"
내년말 금리 4.6% 전망...내년 물가상승률 2.4%, 경제성장률 1.4% 예상

(서울=연합뉴스) 주중국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작년 3월부터 지속해서 강화해온 추가적인 긴축정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오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의 강한(strong)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면서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회의 결과와 함께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 쏠렸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65~0.90%포인트 낮은 4.6%(중간값)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 전망

이 나온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긴축 정책이 더이상(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긴축 중단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는 "팬데믹 이후 경제는 전망가들을 여러 면에서 놀라게 해왔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내년엔 2.4%, 2025년엔 2.1%로 낮아지면서 2026년에는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에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4.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1.4%로 전망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고, 긴축정책 시작 당시 0.00~0.25%였던 금리는 현재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5.50%까지 올랐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확보증시, '美금리인하 기대'로 강세...美국채 금리 4% 아래로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14일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32분 기준 코스피(+1.21%)를 비롯해 홍콩 항셱지수(+1.14%), 대만 자취안지수(+1.07%), 호주 S&P/ASX 200지수(+1.65%) 등이 상승 중이다.

중국 증시의 경우 상하이종합지수(+0.12%)와 선전성분지수(-0.02%),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0.14%) 등이 포함됐다.

아시아 증시 움직임은 미국 뉴욕 증시 호재를 이어받은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1.4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37%), 나스닥지수(+1.38%)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최초로 37,000을 넘어섰고, S&P500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4,700을 돌파했다. 나스닥지수도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으며, 연준 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0.7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관건은 "언제부터 정책 제약의 규모를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해 '피벗'(정책 전환) 기대를 키웠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975%를 기록,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 10월 중순 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225)는 이날 상승 출발 후 곧바로 하락 전환, 0.38% 내린 상태다. 닛케이 하락에는 엔/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 증가 우려 등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기준금리 하락은 달러 약세 요인이며,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3.9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기준금리 발표 후 급락, 102.655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myo.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하버드대 이사회, '反유대인 논란' 게이 총장 유임 결정

거취 논의 후 만장일치 성명...어려운 사회적 문제 해결할 리더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이사회가 유대인 혐오 논란으로 퇴진 압력을 받았던 클로딘 게이 총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이사회가 이날 성명을 통해 "게이 총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장 해임 권한을 지닌 이사회는 이날 게이 총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철저한 논의 끝에 게이 총장이 현재 하버드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성명에는 당사자인 게이 총장을 제외한 이사회 멤버 전원이 서명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유임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만 이사회는 게이 총장의 유임 결정과는 별개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대해 하버드대는 더욱 분명하게 비난과 반대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게이 총장에 대한 교내·외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게이 총장은 지난 5일 연방 하원 교육위원회가 아이비리그 명문대 내부의 유대인 혐오 여론 등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공화당 엘리자 스테파니 의원이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 말에 "끔찍한 발언"이라며 "하버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자신에 대한 사퇴 주장이 확산하자 게이 총장은 교내 신문을 통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집중력을 잃었다"며 "분명하게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폭력 선동과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위협은 하버드대에 발붙일 수가 없고 반드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

이후 하버드대 교수진과 동문회 등이 게이 총장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데 이어 이사회가 이날 유임을 결정하면서 하버드 사상 최초 흑인 총장인 게이 총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게이 총장과 함께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뒤 역시 유대인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엘리자베스 매길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은 지난 9일 사퇴했다.

koman@yna.co.kr

코리아타운 '돼지곰탕', NYT 올해 뉴욕 최고 요리 선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인 국밥집의 돼지곰탕이 뉴욕타임스(NYT)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 중 하나로 선정됐다

NYT는 13일(현지시간) 뉴욕 지역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 최고의 요리 8선을 발표하면서 한국 식당 '옥동식'의 돼지 곰탕을 포함했다.

2016년 서울에 문을 연 국밥 전문점 옥동식은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에 진출했다.

NYT는 투명한 돼지고기 육수가 특징인 옥동식의 돼지 곰탕에 대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라면서 "그러나 특별한 날에 먹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NYT는 '올해 뉴욕 지역의 최고 신생 레스토랑 12곳' 명단에 한식 레스토랑 '나로'를 올렸다.

나로의 운영자는 맨해튼의 고급 한식당 '아토믹스'를 운영하는 박정현·박정은 세프다.

지난해 말부터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서 영업하는 나로에 대해 NYT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이면서도 절제된 형식으로 재해석했다"고 평가했다.

koman@yna.co.kr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낙연, 새해 신당 창당 공식화... "욕심대로라면 총선서 제1당"

"양향자 · 금태섭과 연대 바람직...이준석 연대까진 생각안 해" '명낙회동' 선긋기... "단합한 것처럼 보여주려는 사진찍기 의미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내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여타 제3세대와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신당 창당 진짜로 할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 "아주 실무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창당 시기와 관련해선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당 멤버와 관련해선 "이제 함께 모아져야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거취라는 건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총선 목표에 대해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라며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제일 큰 변수"라고 했다.

이미 '제3세대'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및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

대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쇠신 정도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접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하고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해 봤자 부질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고 비난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에 대해선 "딱하다. 그 사람들 정치는 욕밖에 없나 싶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 이것이 지양당 좋다는 사람 빼 오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 시 야권 표가 분열돼 여론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의힘도 분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난다"며 "사진 찍고 단합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이날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오는 것이 단합이라면 그 단합은 죽은 단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이 대표와 함께 초청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다음에 제가 방송 출연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며 이 대표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geein@yna.co.kr

비주류 4인방, 이재명 대표 사퇴 ·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4인방은 14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명(비이재명) · 친명(친이재명)계 등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 김종민 · 조웅천 ·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에서 "이 대표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 발만 물러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 대표가 선당후사(先黨後私)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이 결정에는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라며 "원칙과 상식 네 사람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DEC. 15th - DEC. 21st, 2023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COUNTDOWN TO CHRISTMAS

크리스마스 선물은 H 마트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The best gifts are on sale early. Plan ahead & get your gifting going!

COLD WEATHER CALLS FOR SUKIYAKI! Sweet, salty, and savory, this Japanese hot pot dish is a warm embrace for those chilly evenings!
추운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맛있는 스키야키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Best Gift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BOX \$29.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Pomegranate 석류 LB \$2.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NEW CROP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Heel Meat 생소 사태 LB \$7.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ozen Beef Bones 냉동 사골 LB \$1.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볶집 목살 스테이크 LB \$5.99	Marinated Boneless Pork Loin Bulgogi 양념 돼지 등심 불고기 THINLY SLICED/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leaned Cuttlefish 결집 벗긴 갑오징어 LB \$4.99	SANFORD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홍합 2 LB/PKG \$12.99
Frozen Whole Cleaned Calamari 한치 LB \$7.99	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19.99
TONGTONGBAY Frozen Half Cut Crab 통통배 냉동 절단꽃게 3 L SIZE/1.5 LB/PKG \$6.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5.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YELLOW 15 LB + 3 LB \$14.99	H MART SMART CARD ONLY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6.99
H MART SMART CARD ONLY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르셀 궁중당면 골드 1.5 LB \$2.99	H MART SMART CARD ONLY HAITAI Sindangdong Dukboki Snack 해태 신당동 떡볶이 8.1 OZ 2\$6 FOR

RAW NATURE Sweet Rice 자연담은 찰쌀 15 LB \$14.99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BOWLS/PKG \$14.99	OTTOGI Jin Ramen 오투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4.99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금S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4.99	SM Korean Pancake 서울마님 갈자홍박전/부추전/고추대파 감자전/김치전/노란호박전 ALL VARIETIES 1.32 LB \$4.99
CHUNGJUNGONE O'FOOD Anjuya Spicy Stir-fry Beef Intestine 청정원 오프드 안주야 매운 곱창/대창/막창/콤보 볶음 \$9.99 ALL VARIETIES 7 OZ	PULMUONE Katsuo+Teriyaki Stir-fry Udon 풀무원 가쓰오+칠판볶음 우동 32.6 OZ \$6.99	SAMPO Canned White/Yellow Peach 삼포 황도/백도 통조림 14.11 OZ \$1.99	YOODONG Silkworm Pupa in Sauce 우동 푹배기 번데기탕 SPICY/SOYBEAN PASTE 9.87 OZ \$1.99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2\$6 FOR
CROWN Shin Zzang Snack 크라온 신짱 8.64 OZ 2\$6 FOR	HAITAI ACE CRACKER BASQUE CHEESECAKE 해태 에이스 크래커 바스크치즈케이크맛 12.84 OZ \$3.99	LOVECOOK Round Pan 러브룩 전팬 \$26.99 \$19.99 36 CM EA	KOTO Double Walled Glass Mug 고토 이중 유리 머그컵 TYPE A/TYP B \$6.99 \$4.49 EA	HELLO HOME Modern Garden Microfiber Comforter 헬로홈 모던가든 양면 극세사 차렵이불 QUEEN (200 X 230 CM) \$89.99 \$59.99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b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jung@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율기 김 978.694.2043 yulgi@bostonpremierrealty.com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디디 주 617.780.7839 didi@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eunjung1@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o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bostonpremierrealty.com	 마사 송 213.503.0397 mar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승호 김 617.815.326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김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준 781.899.3412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현숙 김 781.899.1214 hyeon@bostonpremierrealty.com	 진영 김 617.515.1162 j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교 617.645.6728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희진 김 604.841.5102 heo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8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988@gmail.com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707@gmail.com	 Lu Jieng 248.448.0117 lujieng@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6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김기현 당대표, 페이스북으로 사퇴...與 인적쇄신 격랑 속으로

총선 위기론 속 중도하차.. 일부에선 윤대통령의 격노에 하차 설도
'김장연대' 2선 후퇴...대표 권한대행 체제 거쳐 비대위 전환에 무게
리더십 전환기에 예산·청문회 정국...질서있는 조속한 전환 절실

(김포=연합뉴스) 흥천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집권 여당이 인적 쇄신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총선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날 장제원 의원의 전격 불출마 선언에 이어 당내 주류 핵심이던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희생 결단이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당 대표 궐위 상황에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졌지만, 앞으로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다. 더 이상 제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선 안 된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잠행하며 거취 고민을 이어가던 김 대표가 '주류 희생'이라는 압박 속에 끝내 취임 9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책임론에 직면했지만, 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당직자 총사퇴로 2기 지도부를

꾸리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주류 희생'을 요구하는 당 혁신위원회와의 갈등, 여권의 지지율 담보가 이어지며 총선 위기론이 대두됐다.

특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만 우세를 보인다는 당의 자체 관세 분석 보고서가 보도되고, '정부 견제론'(51%)이 '정부 지원론'(35%)보다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갤럽,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혁신위 활동이 조기 종료된 직후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장 연대'는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게 됐다.

당대표의 사퇴로 앞으로 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석인 당대표 자리를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당무 현안들을 진두지휘하며 차기 지도부 체제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됐다.

당 대표 궐위에 따라 당장은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고 있다.

등이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당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있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준비와 개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민의힘으로선 당지도부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연말 예산·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당장 다음 주에만 경제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버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이라는 파고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신뢰받는 리더십 체제로 조속히 정비해 당을 안정화하고 쇄신 공전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14일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내부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당을 위한 결단'으로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와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내린 당을 위한 결단이 당

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진작 하면 좋았을 텐데 감동이 덜하다"고 했다.

김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역구(울산 남구)를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직 사퇴하면서 지역구는 나가는 모양새로 오히려 인적 쇄신 방향에서 퇴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일간지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거부했으나 윤대통령의 격노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與 구원투수는 누구...김한길·한동훈에 인요한까지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평천 안채원 기자= 국민의힘이 4개월 남은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르기로 14일 결정하면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14일 3선 이상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당의 빠른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다음 주 안에 비대위를 띄운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관련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하고 15일에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비대위 전환에 한층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은 국민 눈높이와 국민 공감, 총선 승리 세 가지다.

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후보군

을 놓고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윤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전략 기획에 밝은 '노련한 정치인'인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새 정부 출범을 도왔고, 줄곧 윤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층이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점이 다소 부담이다. 아울러 윤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내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인지도와 화려한 언변으로 '스타성'을 갖춘 한 장관이 수도권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반드시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사 출신인 데다 현직 장관 신분인 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바람몰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비주류 재선 이용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라도 악마라도 데려와서 비대위원장을 시켜야 한다"면서도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므로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대야 투쟁력 등을 생각하면 고려할 카드 중 하나지만 현직 법무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걸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또 검사냐라는 논란까지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출연, "비대위원장에 오르면 (장관직에서) 바로 사퇴하고 처리돼서 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주류 희생' 혁신안 등으로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 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인 위원장이 혁신의 키를 처음 돌렸기 때문에 참신한 시도이긴 하지만, 비대위는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므로 그런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3·8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데도 '윤심(尹心·윤대통령 의중) 논란' 속에 당권 도전을 접어야 했던 나경원 전 의

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밖에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2대 총선 전에 이미 비대위를 이끈 경험이 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거나 윤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된다.

한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로 활동한 최고위원들은 조만간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 당 의결기구 유지를 위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대위 출범 후 비대위원으로 연속해서 활동하기보다 당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yjikim84@yna.co.kr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골프와 인생 15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18번홀: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

어느덧 18번 마지막 홀팅팅 그라운드에 선 지금 나는 문득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라는 말이 나의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동반자중 선두와의 격차는 2타차, 내가 파를하고 그놈이 OB후 더블한다면 동타, 트리플을 한다면 내가 이긴다. 역으로 3위와 나와의 격차 역시 2타차, 아차하면 2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다. 2등이라도 고수하려면 나는 꼭 파 이상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만 한다.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고 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티샷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수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200야드 언저리에 페어웨이 벙커, 오른쪽은 OB지역, 눈에는 안보이지만 스코어 카드 지도상에 벙커 300야드 안쪽으로 작은 도랑 헤저드가 자리하고 있다. 파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페어웨이 벙커 왼쪽을 지나가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스윙한 나의 티샷은 다행히 벙커 왼쪽 러프에 떨어진다. 비록 페어웨이에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OB는 아니니 일단 안심이다. 파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세컨샷을 위해 볼앞에 위치한다. 의외로 러프가 깊다. 채가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목표는 파, 한클럽 길게 잡고 있는 힘껏 스윙을 한다. 볼이 힘없이 굴러간다. 목표한 거리의 반도 못갔다. 투온의 꿈은 사라졌다. 주위를 살펴본다. 경쟁자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아직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있다.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



파칭웨지를 손에 쥐고 세번째 샷에 나선다. 무슨일이 있어도 그린에 올려야한다. 그것도 최대한 홀 가까이... 부드럽게 스윙한다. 잘 맞았다. 방향도 좋다. 볼이 곧장 홀컵으로 향한다. 이게 웬일인가 잘하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다. 만약 나에게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한다면 생각지도, 기대도 안했던 “버디” 를 하게된다. 홀컵 3피터 앞에 떨어진 나의 볼이 내리막 경사를 타고 홀컵으로 향한다. 조그만 더, 조금만 더... 땡그랑 소리와 함께 홀컵으로 속들여간 나의 볼. “버디” 다. 대역 전극의 서막을 알리는 기분좋은 “버디” 다. 역시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 2타 앞서가던 친구놈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 싱글치는 이놈도 이슬이슬한 세컨샷 미스로 투온에 실패했지만 3번째 어프로치에서 핀에 거의 갔다 붙인다. 이제 파렛만 남았다. 평소 같으면 쉽게 넣을 수 있는 거리다. 놈의 신중한 파렛, 그러나 볼이 홀컵을 두번 돌면서 비켜 나간다. “보기” 다.

나는 선두와 2타의 격차를 극복하고 동타를 기록했다. 나는 친구를 향해 크게 외친다.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 고

골프는 흔히 인생에 자주 비유되곤 한다. 골퍼라는 운동은 18홀을 돌면서 무궁무진한 변수와 이에따른 어려움, 또는 행운이 예고없이 찾아온다. 이를 다 해결하고 결국 “장갑을 벗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듯 인생 또한 눈앞에 보이는 예고된 변수(벙커, 헤저드 등)


예고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변수 (깊은 러프, 나무 뒤, 깊게파린 디봇 등) 갑자기 닥치는 난관, 뜻밖의 행운 등 모든 일들을 겪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라는 명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골프를 인생에 비유하게 되는것 같아.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인생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며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까지 어설픈 주말 골퍼의 되도 않는 썰을 풀며 18홀의 “골프와 인생” 을 마감합니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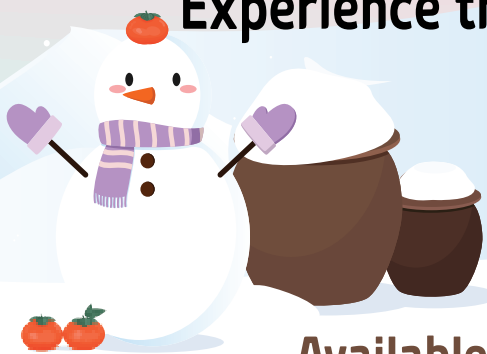
Tel. 508-740-9188

H MART 강원특별자치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최고의 겨울철 제품

강원도 지자체 특판전

Experience the peaceful mountains flavors from the GANGWON province with our H Mart exclusives.



DEC. 15th – DEC. 28th, 2023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Cambridge, & Quincy stores

GANGWON Tigaktegak
Korean Traditional Snack
강원 티각태각
다시마/고추/우엉/비트
/연근/꽃게 부각



\$2.99 SELECTED VARIETIES
3.52 OZ

SANDOLFOOD
Fresh Knife-Cut Noodle/
Potato Sujebi/
Potato Knife-Cut Noodle
산돌식품 생칼국수/
감자 수제비/
감자 칼국수



\$2.99 15.87-35.2 OZ

MAEHONG L & F
Nurungji
Scorched
Rice/Barley
매홍 L & F
솔뚜껍/보리
누룽지



\$4.99 BARLEY - 1.54 LB/
RICE - 1.76 LB

BONGPYUNG
15 Roasted
Grains Powder
봉평촌
십오곡
미숫가루
2.2 LB



\$5.99

OSAEK
Fermented
Soybean Paste
오색전통장
청국장
11.64 OZ



\$4.99

CHUNG HAE S&D
Seaweed Love
Premium
Roasted Seaweed
청해에스엔디
해초사랑
도시락김



\$8.99 0.10 OZ X 27 PCS/BOX

YANGYANG
QUALITY
Glutinous Corn
양양의 농부
강원도 7번 국도
찰옥수수
10.58 OZ



\$3.99

HANA
Premium
Busan
Fish Cake
하나
부산어묵
2.2 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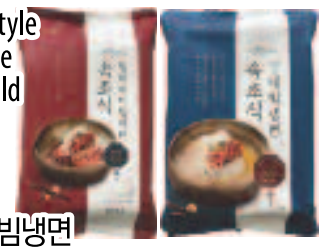
\$3.99

33 Tteokbokki
Original
Tteokbokki
삼삼
떡볶이
오리지널
1.24 LB



\$3.99

Sokcho Style
Myungtae
Bibim/Cold
Noodles
속초식
명태회
냉면/비빔냉면



\$6.99 BIBIM - 1.72 LB/
COLD - 2.78 LB

MAEHONG L&F
Roasted
& Dried
Sweet Potato Bar
자연다움
고구마스틱
14.1 OZ



\$14.99

YYOSA EK
Traditional
Korean
Biscuit
오색한과
참쌀 썩 유과
7.05 OZ



\$3.99

GANGWON
Buckwheat
Sikhye
봉평메밀
냉식혜
50.72 FL OZ



\$3.99

N CHOICE
Almond, Adlay,
Yam Tea with
Embryo Bud of Rice
엔초이스
쌀눈이 들어간
아몬드율무마차



\$7.99 1.76 LB(40 EA/BOX)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Quincy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Brooklin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67) 연말 재정계획 마무리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3년을 마감하며 저축을 극대화하고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며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 은퇴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직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리고 IRA 또는 Roth IRA에는 2024년 4월 세금 보고할 때 투자할 수 있다. IRA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이나 국제정이 책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 절세하며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2023년 기준으로 \$22,500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불에서 \$22,500을 투자하면 \$77,500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한다.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7,5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 \$30,000까지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

을 받을 수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매년 \$6,5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씩 할 수 있다. 수익률 7%만 계산해서 \$6,500씩 25년 하면 약 \$40만 불, 30년 \$60만 불,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불 이상이 된다. 부부가 함께하면 당연히 두(2) 배가 되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은퇴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금액을 합하여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 RMD 금액이 된다. 정부에서는 노년을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었으므로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서 사망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서 찾아야 하는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73살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2022년 말 기준 \$500,000이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8,868이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RMD에서 \$10,000을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25% 적용하여 \$2,500이 벌금이 된다. 찾아야 하는 액수에서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여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529 플랜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며, 그 돈이 수혜자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이 면제(Tax Free)된다. 여기서 말하

는 교육 자금이란 방세, 식사비, 책값, 학교 등록금 및 교육에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 학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비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529 플랜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529에 투자된 돈은 학생 돈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 돈으로 계산하며 학비 보조를 책정할 때 529에 있는 총액에서는 5.64%만을 학생 부담금으로 계산한다.

가입자가 사는 주에서 투자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시간(MI)주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529 플랜에 \$10,000을 투자하면 세금 공제 4.25%, 즉 \$4,250을 공제받기에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보내기 전 은퇴 계좌 투자를 최대 이용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RMD 인출을 잊지 말고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사다함은 대가야 정벌에 참전하고 돌아온 그해(561년, 삼국사기의 기록은 562년이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화랑세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풀어보면, 세종과 미실의 장남 하종은 562년(564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종의 외모가 사다함을 많이 닮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사다함의 아들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또한 사다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기록도 함께 전한다. 미실의 이모인 사도왕후가 미실에게 태자 동륜을 섬겨 아들을 낳으면 후대에 봉해 주겠다고 꼬드긴 때가 곧 하종이 태어난 해라고 볼 수 있다. 즉 562년 무렵 미실은 동륜태자에게 색공하여 임신했다. 미실은 사도왕후의 명으로 동륜을 섬기지 얼마(며칠?) 되지 않아 또 진흥왕의 침전으로 불려가게 되었다(왕이 왕후에게 먼저 채근하였다). 왕은 미실을 한번 사랑하고 두번 사랑하면서 그녀의 '색공의 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왕의 곁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미실이 있었다.

당시 왕궁에는 진흥왕의 정비 사도명왕후 외에도 많은 후궁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미실美室, 보명寶明, 옥리玉理, 월화月華는 왕후와 함께 왕을 가까이서 모신 대표적인 궁주

들이었다. 물론 진흥왕은 누구보다도 미실을 가장 좋아하였다. 미실은 교태와 가무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능하여 왕이 조정에서 국사를 논할 때도 동행하여 문서를 잡결하며 모든 업무를 보좌하였다. 이 무렵(아마도 564년 경) 미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딸이었다. 진흥왕은 애송공주라고 이름하였다. 왕은 예쁜 딸을 자신의 딸로 알고 공주에 봉했지만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인 동륜태자가 아버지였다. 다만 진흥왕은 그 내막을 모를 뿐이었다. 당시 하종은 세살(만2세?)이었는데 애송공주와 동복이었기에 진흥왕은 그에게 사지숙(13등급의 경위京位이다)의 관위를 내렸다. 아울러 왕은 하종에게 왕궁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특전도 베풀었다. 그후 왕은 미실을 더욱 좋아하여 또 딸을 낳았으니 그녀가 반야(般若)공주이다. 미실의 출산이 거듭해지자 왕은 이와 동시에 하종의 관위도 승진시켰다. 진흥왕이 얼마나 미실을 좋아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하종은 대사대수(12등급이다)로 승진되었다. 왕과 미실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고 다음에 태어난 딸은 난야(蘭若)공주로 봉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종의 관위는 올라 나마(奈麻)가 되었다. 나마는 11등급이다. 이윽고 진흥왕은 미실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그가 수종전군(壽宗殿君)이다. 왕은 미실로부터 태어난 네 명의 자녀들에게(애송공주는 아들 동륜태자의 딸이다) 동복 형인 하종에게 호형하도록 했지만, 하종은 자신의 관위가 낮았기에 공주들과 전군으로 부터 형이라

불려지길 꺼려하였다. 이에 진흥왕이 하종을 전군(殿君)으로 봉하려 하였다. 하지만 담당 관원인 삼호공(三好公)의 반대로 그 뜻을 거두었다. 삼호공은 (세종)전군의 아들들 또 전군으로 봉함은 부당하다고 직언하였다. 이에 미실은 노여움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그를 호출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미실은 삼호공이 가까운 친척이었기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내질(內秩)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의 마음도 읽지 못했다며 그를 파직하려고 하였다. 이에 삼호공은 "언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은 상서(祥瑞)로운 일이 아닙니다. 급히 차면 기울어지고 서서히 이루어지면 완전합니다. 비록 전군이 아니더라도 부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필 제도를 넘어서서 못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린 후에 가하겠습니까?" 라고 충언하였다.

그러나 미실은 끝내 노여움을 풀지 않았고, 그 관직은 박영실의 아들인 노동(勞同)미실과는 이종(異宗)에게로 돌아갔다.

하종은 삼호공의 예언처럼 후일 부마가 되었다. 하종은 두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정처 미모낭주는 7세 풍월주 설원왕의 딸이고, 2차 은륜공주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의 막내딸이다. 미모낭주는 딸 유모와 영모, 아들 모종공을 낳았다. 영모는 김유신의 정처이고 유모는 2차이며, 모종은 22세 풍월주 양도공의 아버지이다. 하종의 2차 은륜공주는 딸 하희와 율희, 아들 효종공을 낳았다. 하희의 아들 춘장공은 23세 풍월주가 되었다.

한편 진흥왕은 하종을 전군으로 봉하려는

미실의 바람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하종을 자신의 가지(假子)로 삼아서 마침내 전군으로 책봉하였다. 그날이 수종이 태어난지 77일이 되는 날이었다(572년 무렵의 일이다). 진흥왕은 미실과 하종, 수종과 함께 같은 수레를 타고 전군의 책봉을 위하여 신궁으로 향했다. 신궁에서 예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실은 기쁨이 지극하여 왕의 품속에 안기어 "하루 아침에 두 전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말하자, 왕은 "짐과 더불어 한 몸인데 어찌 다만 두 전군뿐이겠는가?" 라며 미실을 총애했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날 밤 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친히 축하하고, 태자 이하 모든 왕자와 전군들을 모아 미실에게 절하고 어머니라 부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륜태자는 이미 미실과 사통한 관계였기에 '영거주춤'하게 절을 하였다. 이에 미실이 급히 일어나서 태자는 다른 전군과 같지 않은데 어찌 절을 시키냐며 절 받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왕은 허락하여 동륜태자는 일배(一拜)를 하였고 다른 왕자들과 전군들은 사배(四拜)를 하였다. 수종과 하종을 전군으로 봉한 진흥왕은 기뻐하며 잔을 들어 취기가 올랐고, 곧 미실을 이끌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에 동륜태자 이하 모두 만세를 외치고 물러갔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DEC. 14th - DEC. 21st, 2023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Cambridge, & Quincy stores



DAENG GI MEO RI
댕기머리
DOORI COSMETICS KiGold
Ginseng Blossom Hair Set

두리물 기골드 진생 블라썸 샴푸 + 트리트먼트 세트
SHAMPOO + TREATMENT (400 mL + 400 mL/SET)

~~Reg. \$39.99~~

\$21.99

Please note:

- GINSENG ingredient is for topical hair use only, not for consumption. Please do not eat.
- The product color may change due to ginseng components, but the efficacy remains unchanged. Feel free to use with confidence.



Sangrime Tea & Tumbler Set
해오름 산그리메 티 & 텀블러 세트
3.42 OZ (CHRYSANTHEMUM TEA + GREEN TEA + GINGER TEA + YUJA TEA) + TUMBLER/SET

\$16.99



high-temp reinforced glass
고온에도 강한 내열 강화유리 텀블러



한국산
여수권현망 멸치
MADE IN KOREA
1.5 kg



Dasi Anchovy
한려수어 다시멸치
PRODUCT OF KOREA/LIMIT 3
3.3 LB/BOX

\$1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역사 앞에서 고뇌하는 영웅 이순신...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1545~1598)만큼 영웅 서사에 부합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몰린 임진왜란 때 백성에게 희망을 준 옥포대첩,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랑대첩 등 그의 빛나는 무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영웅 서사를 완결하는 마침표처럼 보인다. 평생 충의(忠義)를 좇았던 그는 노랑대첩 때 패퇴하는 왜군을 추격하다가 총탄에 맞아 전사함으로써 자기를 오롯이 역사의 제단에 바쳤다.

그의 장렬한 최후를 그린 영화가 나왔다.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이순신 삼부작의 마지막 편 '노랑: 죽음의 바다'(이하 '노랑')다.

이순신의 영웅 서사를 완결하는 이 작품은 김 감독의 '명량'(2014)과 '한산: 용의 출현'(2022)을 잇는 '화룡점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의

유언에 따라 왜군은 조선에서 철수하려고 하지만, 이순신(김윤석 분)이 제해권을 쥐고 있어 남해안에 발이 묶인다.

이순신과 명나라 장수 진린(정재영)이 이끄는 조·명 연합 수군의 봉쇄로 궁지에 몰린 왜장 고니시(이무생)는 진린에게 밀사를 보내 뇌물 공세를 해가며 타협책을 모색한다.

왜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은 진린은 왜군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만, 이순신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순신은 "절대 이대로 원수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순신은 적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지 않는다.

이 영화엔 '끝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의 막바지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고뇌한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선 영웅의 역사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만, 이순신은 "이렇게 적을 살려 보내면

이 전쟁을 올바르게 끝낼 수 없다"고 일갈한다.

이순신의 마음엔 왜군의 침략으로 목숨을 잃은 숭한 백성과 전우들이 있다. 최후 결전의 바다로 가는 배에서 이순신은 전사한 전우들의 명단을 묵묵히 본다.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는 이순신의 고민에는 자기 삶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는 고민도 녹아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노랑대첩에서 영웅에게 어울리는 죽음을 맞는다.

노랑대첩을 앞둔 조선과 명나라 수군, 왜군 지휘부의 이야기로 한 시간을 채운 이 영화는 나머지 전부를 노랑대첩에 할애한다. 전투 장면만 한 시간 반에 달한다.

동틀 무렵의 일부 전투 장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어두운 밤의 해상 전투 장면도 볼 수 없다.

시커먼 밤하늘을 가르는 불화살, 포격을 당해 불타는 판옥선, 해무에 가려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운 함대 등이 '명량'과 '한산'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낸다.



선상에서 벌어지는 백병전을 묘사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인 느낌이다. 주로 높은 곳에서 백병전을 내려다보던 카메라는 갑자기 그 속으로 들어간다.

칼과 칼이 부딪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총이 불을 뿜는다. 관객은 이순신을 따르는 조선 수군이 돼 노랑대첩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빠져든다.

전투 장면이 꽤 긴 만큼 중간에 살짝 늘어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전투를 앞둔 이순신과 진린, 고니시의 이야기도 비슷한 느낌

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김한민 감독이 이 영화를 위령 음악인 레퀴엠에 비유했듯, 작품 전반에 무거운 분위기가 흐른다.

이순신이 최후를 맞는 장면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지어낸 것이지만, 감동적이다. 관객의 입장에선 이 영화의 도움으로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셈이다. 신화에 빠질 가능성을 의식한 듯 감정을 절제한 부분도 돋보인다.

12월 17일 - 12월 2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 운수: 복잡한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도망을 가려 하지 말고 풀어나갈 생각을 하세요. 조금씩 주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금전: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세요.
- 애정: 이제는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생각대로 밀어붙이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1일 길일. 17, 23일 주의.

소띠 | 좀 더 깊이 생각하는

- 운수: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계획성이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애정: 사랑이라는 감정도 미움이라는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허울에 얽혀 있는 것은 서로에게 참으로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범띠 | 따뜻하고 깊은 마음으로

- 운수: 들은 말은 삼 년 가고 한 말은 사흘 간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이 쉬 잊어버리니 남의 얘기를 하여 시비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돈줄이 막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인절 부절하게 되는 때입니다.
- 애정: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뜻하고 깊은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3일 길일. 17, 19일 주의.

토끼띠 | 새로운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 운수: 새로운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심신이 편안해지고 평소보다 좋은 일도 기대됩니다.
- 금전: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이 값진 결과로 보답을 해 줄 것입니다. 가망이 없었던 곳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서로 사물을 보는 관점이 같고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대상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용띠 | 편안히 기대고 싶은

- 운수: 직장이나 학교 등의 조직 사회에서의 구설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운입니다.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한 주입니다.
- 금전: 돈을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주입니다.
- 애정: 누군가에게 이제는 편안히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사랑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뱀띠 | 행운이 따르고

- 운수: 어디를 가나 주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주입니다. 아울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행운이 따르고 사업투자에서는 풍부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약간 흐림 뒤에 맑음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옛말을 실감하게 되는 주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말띠 | 최선을 다하도록

- 운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니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최상의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전: 거의 바라는 대로 재물을 주위에 낼 수 있는 운세로 의외로 희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 애정: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사랑이 오고 가는 주입니다. 상대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면 감동을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양띠 | 순조롭게 해결되는

- 운수: 넉넉한 마음이 되어 사랑을 나눠줄 때입니다.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금전: 소득이 비교적 괜찮은 주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금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 애정: 정이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요. 이성 간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원숭이띠 | 지출 비용을 줄여야

- 운수: 성미가 조금한 사람이 느긋하고 신중한 사람이 못 됩니다. 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 금전: 소득은 없는 편입니다. 먼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자신을 막고 있는 장벽인 줄 알면서 정작 장벽을 깨는 일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군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닭띠 |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 운수: 목은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의외의 도움을 받는 행운의 주입니다.
- 애정: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자신이 잃은 줄도 모르게 잊고 있던 소중한 행복하너를 되찾았다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개띠 | 전심전력을 다 해야

- 운수: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보다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지금 당장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화하지 말고 하던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합니다.
- 애정: 더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지 말고 서서히 상대를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17, 21일 주의.

돼지띠 | 일단은 재고해 보는 것이

- 운수: 자신이나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금전: 가까운 주위 사람과의 금전 거래나 보증 등은 일단은 재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자기감정만 앞세우고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3일 길일. 17, 22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이재, 곧 죽습니다' 서인국 "삶의 소중함 느끼게 해준 작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평범하고 익숙한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 주연 서인국은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원작 웹툰의 팬이었고, 웹툰을 봤을 때도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크게 느꼈다"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5일 공개되는 '이재, 곧 죽습니다'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최이재(서인국)가 죽음(박소담)이 내린 심판에 의해 열두 번의 죽음과 삶을 겪게 되는 이야기다.

서인국은 죽음의 심판대에 오른 취업준비생 최이재를 연기한다.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모욕한 죄로 죽음을 앞둔 열두 명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아야만 하는 인물이다.

서인국은 이재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인물"이라며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좌절감을 느낀다. 죽음에 직면하기까지의 압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웠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배우가 함께 작업하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최이재가 하는 행동으로 보이게 될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했다.

박소담은 최이재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죽음을 연기한다.

그는 "죽음은 최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재의 감정에 굉장히 집중했다"며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최이재의 선택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가 진심으로 느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대본을 읽으면서 스스로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울기도 했다"며 "작품을 보시면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앞둔 열두 명의 인물은 김지훈, 김강훈, 최시원, 이재욱, 오정세 등이 연기한다. 그들은 나이도, 성별도,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다.

연출을 맡은 하병훈 감독은 "너무 많은 인물이 나와서 정신없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며 "다음에는 어떤 이재가 나올

까, 어떻게 죽음을 피하게 될까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이어 하 감독은 "드라마 각색 작업을 하며 시각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대역 없이 원초적인 액션 장면을 많이 넣었고, 웹툰과 다르게 드라마는 매회 연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박태우 역·김지훈)를 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재, 곧 죽습니다'는 오는 15일 파트 1의 1~4화가 전면 공개되며 내달 5일에는 파트2가 공개된다.

에이티즈,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꿈만 같고 기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에 에이티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른데 대해 "꿈만 같고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이티즈는 11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빌보드 200' 1위 소식을 접하고 정말 놀랐다. 지난 앨범에 이어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THE WORLD EP. FIN: WILL)로 '빌보드 200'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에이티즈는 K팝 그룹 가운데 차트 정상에 오른 일곱 번째 팀이 됐다. 이른바 4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소속으로는 처음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에이티즈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여덟 번째 미니음반으로 '빌보드 200' 3위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12월 내놓은 첫 싱글로 7위, 올해 6월 내놓은 아홉 번째 미니음반으로 2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왔다.

에이티즈는 "컴백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항상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는 '에이티니'(에이티즈 팬덤) 덕분에 매일 이런 선물을 받고 있다"고 팬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우리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에이티즈의 음악을 해나가며 더 좋은 무대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 가기 위한 도구

삶이 분주할수록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오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일케다. 우리는 개인의 생각 속에 더불어(함께)라는 지극히 평범한 단어 하나를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다면 욕심을 희망으로 욕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며 서로 부대끼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깊고 높고 넓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이미 저만치 발걸음이 앞서 가 있다. 바쁜 삶에서 여유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 많은 이들이나 누리는 사치품 같은 느낌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쉽게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 방향과 목적지는 진정 어디를 향하고 어디인

가. 그렇다면 그 방향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를 생각해볼 사이 없이 시간의 초침은 짹짹이며 과거의 시간을 만들고 세월이란 나이에테를 늘려간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사이의 정해지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말이다. 그렇지만 거역할 수 없는 사실 속진실 하나는 언젠가 나는 죽는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또한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나 자신의 삶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그 의미의 깊이와 너비의 폭은 광활해질 것이다. 그래서 바쁜 속에서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다.

옛그제부터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다. 교재는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장을 넘기며 서문에서 만난 글귀가 마음에 닿았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며 인간 고유의 모든 행동에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렇게 성경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만히 나의 소소한 일상을 돌아보니 이미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구 중에서도 언어로 만들어진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기도는 도구이지만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존재하고(Being) 존재가 되어 가기(Becoming) 위한 도구다.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도구들(예를 들어, 카펫을 청소하기 위한 기계)과 무엇인가 얻게 하는 도구들(예를 들어 정보를 얻기 위한 컴퓨터)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되고 또한 인간이 되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보다도 기술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영역에는 기술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은 인간의 외적 조건의 경계까지만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인간 내면의 더 넓은 영역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도구(기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 세계 깊이 탐험해 들어가지 못한다. 혹 탐험한다 해도 그리 멀리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광야 사이의 경계에만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는 매우 한정된 능력만을 발휘하고 살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그 무엇을 찾고자 달려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만족해하고 만족할까.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 자신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며 나의 존재함 자체로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무엇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나와 존재해가고 있는 나로 이미 충분한 것이다. 그 존재로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나의 기도인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내일을 향해 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폴 뉴만. 옛적 미국 영화배우이다. 그가 출연한 영화중엔 '스팅'도 있고 '내일을 향해 쏘라'도 있다. 영화 제목치고는 가상하고 인상적이다. 영화 끝장면엔 그가 내일?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장면도 나온다. 영화엔 폴 뉴만과 캐서린 로스가

자전거를 타는 장면도 있다. 보는 맛이 삼삼한데 배경음악으로 영화주제곡이 깔린다. 빗방울 내 머리 위로 떨어지네. 어릴적엔 라디오에서 자주 들던 노래이기도 하다. 노래를 듣다 보면 정녕 빗방울이 경쾌히 튀는 느낌도 받는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할 데이비스 작사, 버트 베커랙 작곡, B J 토머스 노래)

마지막 절 가사는 새록새록 인상적이다. '불평한다고 내리는 비가 그치지 않는바. 걱정은 없

으니 나는 오히려 자유로워,' 영화 평론가의 말이다. '폴뉴만은 도시인의 품모가 강한 냉소적이고 이지적인 반항아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글쎄? 도시적인 냄새야 두터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에게 반항아의 이미지는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폴뉴만의 표정은 늘 천진난만해 보인다. 심각한 범죄나 갱들의 모습을 그는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듯싶다는 거다. 그가 푸른 눈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원래 선하게 보이기 때문인가.

폴뉴만은 자선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한말이다.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다. 운이 좋아 행운을 타고 났으니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나 보다. 성탄절과 연말이면 자선사업 이야기가 나온다. 자선냄비와 딸랑딸랑 종소리가 산타북장의 구세군과 함께 떠오르는 거다. 내년을 향해 쏘는 착한 연말을 되었으면 한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고린도 후서2:4)

“글로벌 중추국가” 칠행시 공모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가
"글로벌 중추국가" 칠행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 한인
보내실 곳: Puacboston@hotmail.com
당선자 발표: 12/22/2023 보스톤 코리아
일인당 1개의 창작 칠행시 응모 가능
응모기간: 12/01/2023 ~ 12/17/2023 오후 11시까지

상금: 최우수상 \$100(1명), 우수상 \$50(2명),
평화상 \$40(3명), 자유상 아마존 기프트 카드\$20불(20명)

응모시 상금수령을 위한 연락처(주소 및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입
관련정보 미기입시 상금 수령 불가

문의: 후원섭 준비위원장 Puacboston@hotmail.com
오은희 간사 401-935-9506

*응모 마감일이 15일에서 1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뇌하수체졸종'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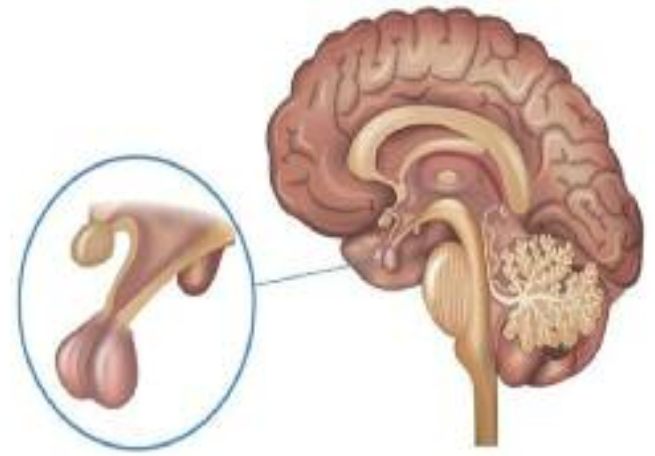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 뇌하수체졸종의 예방과 치료
- 흔한 질환 아니지만 후유장애 심각... 초기엔 무기력-구토-쇼크 등 발생
- 뇌신경 손상 빨라 응급치료 받아야... 주로 뇌하수체 종양 있는 경우 발병
- 시야 결손-시력 저하 동반하기도... MRI 검사 등으로 조기에 발견을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에 생기는 혈관성 질환들이 늘고 있다. 뇌에 '뇌졸중(뇌중풍)' 이 있다면, 뇌하수체에는 '뇌하수체졸종' 이 있다. 뇌졸중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나 뇌하수체졸종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대광명병원 신경외과 유희준 교수는 "뇌졸중이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인해 뇌 조직에 손상이 생기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신경학적 이상이라면 뇌하수체졸종도 같은 개념"이라며 "출혈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뇌하수체 조직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말했다.

· 출혈 시 극심한 두통이 생겨

뇌하수체졸종은 흔한 질환은 아니나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뇌하수체가 위치한 부위는 뼈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뇌하수체와 뼈 사이 공간이 그리 넓지 않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좁은 공간 주위로 중요한 뇌신경들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뇌하수체에 출혈이나 경색이 발생하면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아 주변 조직들이 쉽게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출혈, 경색 등은 정상 뇌하수체 조직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기존에 뇌하수체 종양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급격하고 극심한 두통이다. 안구통이 심하며, 머리를 망치로 두들

겨 맞는 듯한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상 뇌하수체 조직 자체가 압박되면서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을 유발한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로 인해 무기력, 식욕 감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전해질 이상, 쇼크, 나아가 의식을 잃는 것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인접한 시신경이 눌러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양쪽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도 흔히 동반된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안구운동 마비가 생길 수 있다. 양쪽 눈동자의 조화로운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해 복시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심지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 코에서 접근하는 수술로 치료

대부분의 신체 기관은 서서히 발생하는 변화에는 어느 정도 적응할 여지가 있으나 급격한 변화에는 더 쉽게 손상을 받는다. 또 급성 질환은 빨리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나 시간이 늦어질 경우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뇌하수체졸종 상황은 위에서 말한 주변의 뇌신경들의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기에 최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응급 상황인 것이다.

료는 수술을 기본으로 한다. 주로 내시경을 이용해 코로 뇌하수체에 접근하는 '경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다. 문제가 생긴 조직들을 제거해 출혈로 인해 높아진 압력을 낮춘다. 그

리고 동반된 호르몬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 등에 대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유 교수는 "뇌하수체졸종은 치료가 늦어진다면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지만,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이미 발생한 증상들도 호전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시력 저하, 시야 변화가 나타나며 무기력이나 구역, 구토 등이 동반된다면 최대한 빠른 응급실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뇌하수체졸종 예방법

뇌하수체졸종은 주로 기존 뇌하수체 종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렇기에 뇌하수체 종양 자체가 너무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하기 위해선 뇌 자기공명 영상(MRI) 검사가 선행되고, 뇌하수체 선종이 발견되면 정확한 크기와 위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뇌하수체 MRI 촬영이 필요하다.

종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자라 시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되면 시야 결손,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눈과 관련한 증상들을 노안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진료받을 필요가 있다. 또 안과 검진에서 특이 사항이 없다면 신경외과적 측면의 진료도 꼭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고혈압이 뇌하수체졸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평소에 혈압

을 정상 범위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 뇌하수체

뇌의 가운데 위치한 작은 내분비샘이다. 성장호르몬, 유즙분비호르몬, 갑상선자극호르몬 등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총괄하면서 우리 몸의 생식과 발육, 대사에 관여한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성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말단비대증, 거인증이 생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뇌하수체졸종' 을 아시나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YOU'RE INVITED
TO

2023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밤

Holiday Party

DECEMBER

SATURDAY

16

AT 7PM

BOSTON MARRIOTT BURLINGTON

1 BURLINGTON MALL ROAD, BURLINGTON MA 01803

RESERVATIONS OR TICKET INFORMATION CALL:

예약 티켓문의 978 - 994 - 0306

Join us for a night filled of raffles, dancing and fun for all!

고국방문 항공권, 냉장고, 대형 스마트 TV 등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

(글, 그림: 권영라 번역: 서혜원)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명절이자 예수님의 탄신일이예요



1

사실 3세기 전의 크리스마스는 확실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1/6

3/21

2

그러다 히폴리투스란 신학자가 성모 마리아의 수태기를 계산하여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 주장한 이후로 대부분의 나라가 그 날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12/25

3

하지만 초기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따라 유럽과 여러 국가들이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기도 해요



4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모두와 나누기 위해 근대에 와서 서로와 선물을 나누고 트리를 꾸미는 문화가 생겼답니다



5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6

Christmas is a worldwide celebration that originated from Christianity and is the day commemorating the birth of Jesus.



1

In fact, before the 3rd century, Christmas did not have a fixed date.

1/6

3/21

2

Afterward, the theologian Hippolytus calculated the conception of the Virgin Mary, claiming that Jesus' birthday was on December 25th. Since then, most countries began to commemorate that day as Christmas.



12/25

3

However, following early Christmas traditions, Europe and several countries continue to observe Christmas on January 6th.



4

And in modern times, a culture has emerged where people exchange gifts and decorate trees with each other to share joy and happiness during Christmas.



5

Wishing you all a joyful Christmas with your beloved family and friends!



6

2023.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第22代国会議員在外選挙

11.12.

~ 2024.

02.10.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投票するには申告・申請する必要があります。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国外不在者申告期間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在外選挙人(変更)登録申請期間

2024.02.10. 까지

2024.02.10. まで

투표기간

投票期間

2024.03.27.~04.01.

매일 毎日 08:00~17:00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期間中、公館ごとに日時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신고·등록신청 방법

申告・登録申請方法

인터넷(ova.nec.go.kr)

インターネット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申告・登録申請ページへ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公館訪問・巡回受付

우편·전자우편

郵便・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 該当の公館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中央選挙管理委員会在外選挙ホームページ(ok.nec.go.kr)、外交部ホームページ(mofa.go.kr)、
在外同胞庁ホームページ(oka.go.kr)で選挙情報などの確認ができます。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